

섬진강 물길따라 남파랑길 함께 걸어요

광양시 '상반기 걷기 여행주간' 도보길 광양 구간 61km 추천

정병욱 가옥 망덕포구·배알도 섬 정원·김 시식지 등 사색 선물

광양시는 '걷기 여행주간'을 맞아 도보 여행객들에게 섬진강과 망덕포구, 구봉산 전망대 등을 아우르는 '남파랑길' 광양 구간을 추천한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걷기 여행과 '코리아둘레길'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2024 상반기 걷기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코리아둘레길은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 없이 연결하는 장거리 걷기 여행길을 말한다.

해파랑길과 남파랑길, 서해랑길, DMZ 평화의 길 등으로 이뤄졌으며, 모두 4500km에 달한다. 총 90개 구간 1470km에 달하는 남파랑길은 부산에서 해남까지 남해안을 따라 연결됐다. 남파랑길 광양 구간은 섬진강 동단에서 광양을

까지 총 4개 구간(48~51구간), 60.9km에서 만날 수 있다.

남파랑길 광양의 관문인 '48구간'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섬진교에서부터 진월초등학교까지 총 13.4km 이어진다. 비교적 걷기 쉬운 구간으로,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49구간'은 운동주 유고를 보존한 정병욱 가옥이 있는 망덕포구, 배알도 섬 정원, 김 시식지 등을 지나 광양제철소를 통과해 중동 근린공원까지 15.3km를 걷는다. 이곳 역시 쉬운 구간으로 5시간 정도 걸린다.

'50구간'은 도심을 지나 구봉산 등산로로 이어진다. 사라실예술촌, 유당공원을 지나 광양터미널에서 마무리한다. 난이도 보통 수준의 17.6km 구

간이며, 6시간 정도 소요된다.

'51구간'은 광양터미널에서 시작해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등을 거쳐 울촌파출소를 중심으로 한다. 14.5km 길이로, 낮은 난도로 5시간 정도 걸린다.

광양시는 남파랑길 광양 구간을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기게 하기 위해 '두루누리' 앱을 내려받아 활용하길 권했다. 이 모바일 앱에서 '남파랑길'과 원하는 구간을 선택한 뒤 '따라 하기'를 누르면 된다.

김성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 구간인 광양코스는 섬진강과 망덕포구, 배알도 섬 정원 등 낭만적인 자연경관과 광양제철소, 구봉산전망대, 유당공원, 전남도립미술관 등 산업, 역사, 문화가 있는 곳"이라면서 "자신에게 사색과 치유를 선물하는 광양 걷기 여행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 '남파랑길' 49구간을 지나는 '별 헤는 다리' '배알도 섬 정원' '해맞이 다리' 사이로 섬진강이 흐르고 있다. <광양시 제공>

고흥군 '솔로엔딩 그대에게 GO~' 참여자 모집

31일까지...미혼 남녀 20명

27~40세 직장인·농수축산업자

고흥군이 오는 31일까지 '고흥솔로엔딩, 그대에게 GO~'에 참가를 희망하는 남·여 20명을 모집한다. '고흥솔로엔딩, 그대에게 GO~'는 만남의 기회가 부족했

던 미혼 청년들에게 자연스럽게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27세 이상 40세 이하 직장인과 농수축산업자 또는 사업장을 가진 미혼 청년이다. '고흥솔로엔딩, 그대에게 GO~'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청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여성은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행사는 6월14일을 시작으로 2박 3일간 랜덤 데이트, 자유 데이트, 청춘 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친밀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인연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미혼 남녀들이 인연을 만나 결혼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미혼남녀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여수시 수산물 방사능 조사반이 수산물 판매장에서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수산물 방사능 현장 조사반 상시 가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여수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방사능 조사반을 상시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수산물 방사능 조사반은 현장 조사원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수산물 위판장과 수산물 판매 시장, 횡집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상시로 받고 있다.

하루 방사능 측정기는 200건 이상에 달한다.

여수시는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점부터 주 3회 이상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자체 검사를 해왔다.

조사 결과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여수 해양 방사능 측정, 안전성 검사 결과와 함께 여수시 누리집과 전자게시대,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다음 달부터는 핵종 판별이 가능한 방사능 측정기 1대를 추가로 구매해 시민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수산물 취급 업소에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체감된다"며 "전남 제1의 수산도시로서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확보와 수산 등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14억원 투입 산사태·집중호우 대비

사방댐 3개소·계류보전 2개소 설치

보성군이 산사태 및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 재난에 대비해 총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보성군은 지난달 26일 산사태 취약 지역인 울어면에서 주민 대피 훈련을 진행하는 등 산사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 및 장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지사방 2개소를 설치했다.

군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제암산 자연휴양림에서 전남도 시군 산사태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재난사고 대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또 지역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자체적으로 산사태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을 계획 중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다양한 방면으로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 낙안읍성 19일까지 닷새간 무료 개방

국가유산청 출범 기념 축하 공연도

순천 낙안읍성이 오는 19일까지 무료 개방된다. 순천시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오는 19일까지 닷새간 낙안읍성을 무료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18일과 19일에는 다양한 축하공연을 마련했다. 18일에는 정갑군 무성국악진흥회 총감독이 이끄는 창극이 낙안읍성 동헌에서 펼쳐진다. 이 무대에서는 낙안읍성 김빈길 장군의 역사적 업적을 표현했다.

19일에는 순천에서 활동하는 국악 전공자들이

구성된 연희나래 독야지팀이 '달빛 랩소리'를 공연한다.

순천 낙안읍성은 지난 2011년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17일 새롭게 조직된 국가유산청으로 새 이름을 얻는다.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편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순천 낙안읍성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깊이 느끼고, 더 많은 국민이 우리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즐길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